



1.

2.

3.

4.

5.

6.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6등급(매우낮은위험)
--------------	--------------------	-------------	-------------

펀드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Plus 신종 법인용 MMF 1호		47976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 단기금융펀드, 추가형, 개방형	최초설정일	2005.03.08
운용기간	2018.07.08 - 2018.08.07	존속기간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	플러스자산운용	판매회사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외 26개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한국증권금융(수탁)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상품의 특징			
투자목적 : Plus 신종 법인용 MMF1호는 우량 기업어음(ABCP포함)/CD/정기예금/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MMF투자신탁으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주요 투자대상 - 국고채, 통안채, 예보채 - 우량은행채 및 CD, 정기예금 - 우량 CP(ABCP포함) 등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 운용사 홈페이지 [<http://www.plusasset.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명칭	항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Plus 신종 법인용 MMF 1호	자산총액	2,680,940	2,513,217	-6.26
	부채총액	151,821	14,731	-90.30
	순자산총액	2,529,120	2,498,485	-1.21
	기준가격	1,005.83	1,007.33	0.15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운용경과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되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 간에는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4.1%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호조가 지속되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내 정책금리를 추가로 2회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여 채권가격은 가격 상승분을 반납하여 6월 말 수준으로 복귀하였으나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단기자금시장에서의 금리는 소폭 상승하여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호가수익률 기준으로 통안채 91일물 금리는 지난달 대비 0.023% 상승한 1.568%를 기록하였고 기업어음(A1, 91일물) 금리는 지난달과 동일한 1.81%를 기록하였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AAA, 91일물) 금리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1.65%를 기록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월 초 개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7월에 소수의견으로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있었던 만큼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31일 공개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하면 관리물가를 제외한 물가가 이미 목표치인 2%에 근접한 것으로 해당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연내에는 1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단기자금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의 경계감으로 금리가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초단기 자산의 편입과 동시에 고금리 자산의 경우에는 듀레이션을 확대하면서 올해를 넘기는 자산을 편입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만, 8월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부 채권 등 헷지성 자산도 적극적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 기간수익률

(단위: %)

펀드명칭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18.05.08 ~ 18.08.07	18.02.08 ~ 18.08.07	17.11.08 ~ 18.08.07	17.08.08 ~ 18.08.07	16.08.08 ~ 18.08.07	15.08.08 ~ 18.08.07	13.08.08 ~ 18.08.07
Plus 신종 법인용 MMF 1호	0.44	0.87	1.29	1.65	3.12	4.77	9.85
(비교지수대비 성과)	-	-	-	-	-	-	-
비 교 지 수	-	-	-	-	-	-	-

※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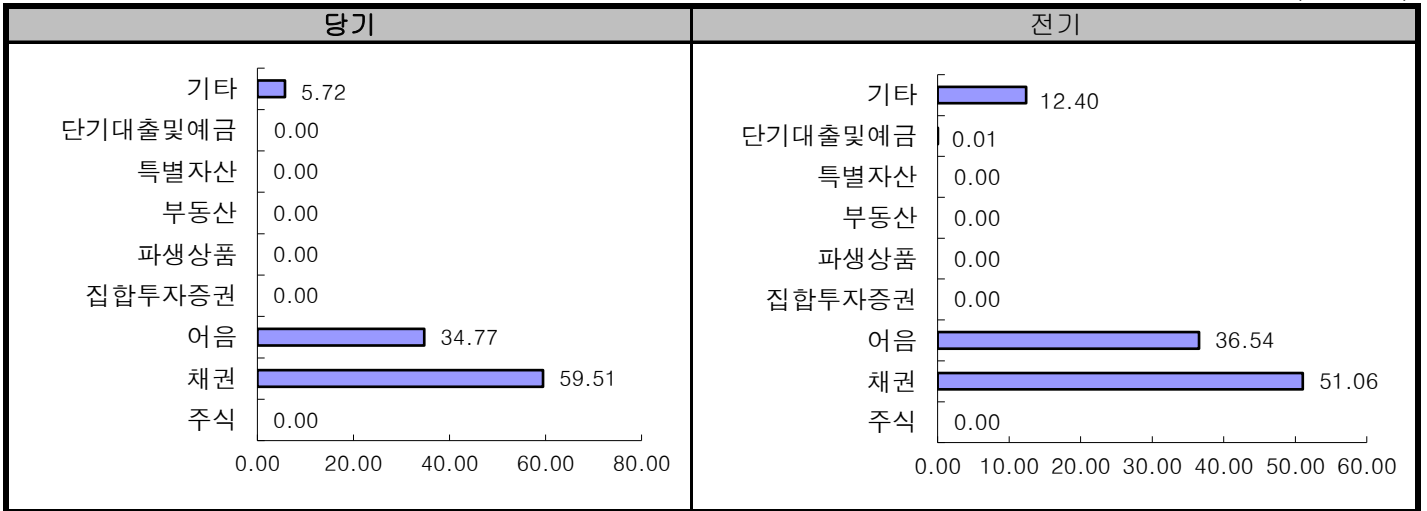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전기	-	1,943	9	-	-	-	-	-	-	1,545	-274	3,223
당기	-	2,360	35	-	-	-	-	-	-	1,806	-349	3,852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	1,495,498	873,824	-	-	-	-	-	-	20	143,875	2,513,217
	-	(59.51)	(34.77)	-	-	-	-	-	-	(0.00)	(5.72)	(100.00)
합계	-	1,495,498	873,824	-	-	-	-	-	-	20	143,875	2,513,217
	-	(59.51)	(34.77)	-	-	-	-	-	-	(0.00)	(5.72)	(100.00)

* () : 구성 비중

▶ 주요자산보유현황

-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비고
뉴웨이제사차 20180710-31-4(E)	100,000	99,990	2018.07.10	2018.08.10	-	A1	3.98	-
래피드시스템제이십차 20180731-31-3(E)	100,000	99,887	2018.07.31	2018.08.31	-	A1	3.97	-
플레인스위커제십이차 20180731-10-1(E)	70,000	69,994	2018.07.31	2018.08.10	-	A1	2.79	-
래피드시스템제사십삼차 20180802-92-2(E)	60,000	59,724	2018.08.02	2018.11.02	-	A1	2.38	-
미래에셋대우 20180807-1-26(E)	50,000	50,000	2018.08.07	2018.08.08	-	A1	1.99	-
한국투자증권 20180807-1-14(E)	40,000	40,000	2018.08.07	2018.08.08	-	A1	1.59	-
세인트포하이제일차 20180508-92-1(E)	40,000	40,000	2018.05.08	2018.08.08	-	A1	1.59	-

뉴리얼투티에스큐 20180723-92-1(E)	39,900	39,740	2018.07.23	2018.10.23	-	A1	1.58	-
에이블김포제일차 20180509-92-1(E)	30,000	29,998	2018.05.09	2018.08.09	-	A1	1.19	-
에이치아이클락 20180627-48-1(E)	30,000	29,991	2018.06.27	2018.08.14	-	A1	1.19	-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운용개시일	직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 규모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협회등록번호
			펀드 개수	운용 규모	개수	운용 규모		
이관홍	2014.01.24	책임운용전문인력	8	6,450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993.08~1999.05 대한투자신탁 채권운용 1999.06~2000.06 중앙종합금융수석펀드매니저 2000.07~2003.07 새마을금고연합회 채권운용 2004.01~2005.11 굿앤리치 자산운용 2006.01~ 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2109000403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운용전문인력
2014.01.24 - 2018.08.07	이관홍

(주 1) 2018.08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Plus 신증 법인용 MMF 1호	자산운용회사	73.46	0.00	88.17	0.00	
	판매회사	102.84	0.01	123.44	0.0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8.37	0.00	22.04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18.37	0.00	22.04	0.00	
	보수 합계	213.03	0.01	255.70	0.01	
	기타비용**	9.59	0.00	11.23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5.16	0.00	8.53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	-	-
		합계	5.16	-	8.53	-
	증권거래세	-	-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펀드 명칭	구분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합계(A+B)
Plus 신중 법인용 MMF 1호	전기	0.12	0.00	0.12
	당기	0.12	0.00	0.13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Plus 신중 법인용 MMF 1호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주1)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해당기간	연환산
-	-	-	-	-	-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18.04.08 ~ 2018.05.07	2018.05.08 ~ 2018.06.07	2018.06.08 ~ 2018.07.07
-	-	-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